

기부의 '롱테일' 시대를 열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5월하순 초여름의 상고리엔 더부러 허탈한 새싹을 꿈꾸며 새싹으로 된 연꽃공용 캠페인으로 전개된 한국여성재단의 <2008 여성희망 캠페인>은 '이제 기부도 '롱테일' 시대'라는 명제하에 진행되리라. 롱테일(Long Tail)이란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서 경제학상의 '파레토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범한 80%가 주도하는 시장을 의미한다(새싹으로 08-5-10~16).

기부도 부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의 통념을 깨기 위한 것이다. 6월초부터 재단이 해마다 5월을 집중 모금의 달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성희망 캠페인 이 바로 평범한 80%가 참여하는 십시일반의 기부문화로 지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무엇보다도 캠페인 매체도 소위인 여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여성의 일로움을 기부하는 일터 나뉘고, 해마다 아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공연장이 재단을 내어주는 문화나눔, 다음해 기부에 대한 편지를 해설하기 위한 식당이 베푸는 음식나눔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웃의 삶에 5월하순을 수놓았다.

여성희망 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롱테일의 가장 부합되는 행사를 꼽으라면 역시 '100인 기부 릴레이'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00인의 이름이 5월 한국인의 31일 동안 자기가 기부하고 또 다른 사람에 기부하도록 돕는 릴레이 기부로서 100인의 주력들이 원주회로 31명이 줄을 잇게 되어 해마다 3100명의 기부행사를 매년 기부로 전환해 필란드러티스인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소수의 우리의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기부금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기부를 권하는 사람도 더욱 적어서 기부금 1000원의 기부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그 둘의 갭은 다수의 소액기부자들로 그들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기부문화의 건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재단이 여성희망재단의 100인 기부 릴레이를 추진하면서 이룩한 '소이만 기부가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기부 롱테일시대를 여는 동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범한 80%가 주도하는 시민 기반의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다져지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보며 캠페인에 함께 한 새싹으로 된 독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여성희망 캠페인의 성과물은 상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열망하고 있는 여 성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라고 하는 재단이 되는 데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내년에 이 같은 열망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고 기성해나가는 것이다.

이해와 이웃을 나누는 것은 2부임을 깨닫고 싶은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모두는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아가는 존재이다. 보물레소 오부리 주들의 힘으로 필로라 반 80%가 평범한 사람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 참여로 더부러 장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공동체라는 꿈을 새삼 인식하는데 롱테일이라는 낯선 개념이 기부문화의 길고귀한 이야기로 기대한다.